

전남도, 외국 자본·기업 유치 나섰다



미국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왼쪽 다섯 번째)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전남관 개관식에 참석, 전남도의 글로벌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 美 '전자제품 전시회' 참석...사상 첫 전남관 운영 RE100·탄소제로 등 글로벌 비전 선포...식품기업과 240억 투자 협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에 참석하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미국에서 RE100·탄소제로·AI 첨단 농업업 육성 등 전남의 글로벌 미래 비전을 선포하며 외국 자본·기업 유치에 나섰다.

재생에너지100은 6GW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구축, 30GW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 추진 등 특화 산업단지 조성, 탄소제로 분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인공지능 첨단 농업업 분야는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첨단 농업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이다. 9일(현지시간) 진행된 전남관 개관식에서 미국 식품기업과 수출 확대를 위한 투자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을 촉진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남관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관 개관식에는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사이버특별보좌관과 박성진 포스코기술투자(주) 대표, 고병일 광주은행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개관식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남관 운영을 통해 전남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참가 기업의 노력과 혁신이 전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미국 식품가공기업 치맥스, H마트와 전남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24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치맥스는 고품질 동강특화농산물에 175억원을 투자해 주스 제2공장을, H마트는 영광 대마산단에 65억원을 투자해 떡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치맥스는 지난 2006년 설립해 코스트코, 크로거, 노스게이트 등 대형마트 약 1만 개 지점에 식

음료를 납품하고 있다. 2018년 고품질 동강정식 품단지에 자회사인 ㈜에이티엔지를 설립해 미국에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H마트는 1982년 설립된 미국 최대 아시아 식품 유통업체다.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에 120여 매장을 운영, 매출액 4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개관식에서 (주)휴먼아이티 솔루션은 미국에 진출한 코스닥 기업 (주)토마토 시스템, 리모트케어포유와 각각 300만 달러의 인공지능(AI) 기반 확장현실(XR) 헬스케어 제품 수출협약을 했다.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또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인공지능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해피소나와 투자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의 (주)로우카본, 미국의 스페이스 플로리다, 오션 그린 하이드로젠사, 3사는 탄소 포집 기술과 우주탐사기술을 융합해 지속가능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주)로우카본과 오션 그린 하이드로젠사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산업 육성 상호 협력 협약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강기정 시장 "광주를 국내 유일 인공지능 실증도시로"

첫 정책소풍 북구 데이터센터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 광주를 국내 유일 인공지능 실증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새해 첫 정책소풍 현장으로 북구 소재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방문하고, AI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정책소풍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 데이터 센터를 둘러보고, AI 집적단지 1단계 조성사업 보안 및 활성화 방안, 2단계 실증

도시 구현 방안 등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엔에이치엔(NHN) 등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첨단3지구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 1단계 조성사업에 이어 2단계 기획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해 기획용역을 진행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업 융합 케이(K)-밸리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집적단지 인프라와 도시규모의 실증환경을 조성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

고 있다"면서 "2단계 사업은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기반해 기업과 협력하는 인공지능(AI) 실증도시라는 대한민국 선도모델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 중인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는 20페타플롭스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HPC)과 68.5페타플롭스 규모의 그래픽 처리장치(GPU) 클라우드 혼용 방식으로, 세계적 규모인 총 88.5페타플롭스 연산자원과 107페타바이트(PB) 저장공간을 갖추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달빛철도특별법 지연은 국회 직무유기"

강기정·홍준표 시장 공동 입장문...신속 제정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회는 총선정국 돌입 전에 달빛철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시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는 영호남인의 30년 숙원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며,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두 시장은 이어 "지난 12월에 이어 올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것은, 특별법 제정을 기다려온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

다"며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과 홍 시장은 "동서회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예정된 제412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산림청 목재문화지수 전국 2위

산림청에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전남도가 2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목재문화지수 평가는 공공기관 국산목재 이용 수준과 지역 주민의 목재 문화 산업 인식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이뤄진다.

목재문화지수는 ▲목재의 생산 ▲관련정책 및 제도 ▲목재 사용 권장 홍보 활동 ▲공공·민간 목조건축 비율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실적 등 17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평가 결과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73.9점을 획득했다. 특히 도민의 목재사용 권장과 목재문화 인식 개선, 목재문화 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언론 홍보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목조건축은 철근 콘크리트 건축에 비해 탄소배출이 51% 적고, 연면적 1㎡당 0.13t의 탄소저장과 0.27t의 탄소 대체 효과가 있다. 이에 전남도는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8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며 목재문화 보급에 힘쓰고 있다. 또 국산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조건축 소재를 생산하는 목재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목재 진화도시 조성 사업비를 확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난대수종 활용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130억원의 예산을 신규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소상공인 위기 극복·경쟁력 강화

특례보증 1500억 역대 최대 지원...디지털전환·온라인 판로 개척

광주시가 경영난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시는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서류 간소화와 신규 채용 인건비 사업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폭넓게 소상공인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금·채무상담·소비촉진 지원 등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확대하고 편의성도 높이고 있다.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을 역대 최대인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최대 대출한도도 업체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출도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시행 시기도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겨 2월로 조정했다.

광주시는 또 누리집에 '채무회령행복상담센터 온라인 상담신청 창구'를 개설하고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대출, 채무조정, 복지·주거 상담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광주상생카드 합인 발행도 이어간다. 1인당 월 50만원(최대 보유한도 150만원)을 7% 할

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생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도 유지한다.

광주시는 디지털 전환·온라인 판로 개척을 비롯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에도 집중한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목표로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비디오커머스(V커머스),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심층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사업으로 '소상공인주치의센터'를 운영하고, 종합컨설팅은 물론 세무·회계·노무·법률·마케팅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급방식과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급 방식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을 60세 미만에서 64세 이하로 완화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